

돈사이전 시 보상기준 마련

돈사를 비롯한 축사이전에 따른 재정적 보상기준이 마련되었다. 또한 축산농가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축사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기준을 마련, 처리시설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 즉 이전비를 보상토록 하고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해 축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토록 하였다. 또한 액비화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액비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할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였다.

그러나 처리시설 설치면제 대상에서 해양배출자에게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한편 배출부과금을 과태료로 전환, 축산농가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가축분뇨를 방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또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외 기타지역의 허가대상(양돈장 1천㎡이상)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총 인(150mg/L 이하), 총 질소(750mg/L 이하)기준을 추가해 적용토록 하였다.

50㎡이하 양돈장도 등록가능

양돈장이 축산업 등록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부는 지난 3일 축산법 일부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축산업자 중 축산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양돈업 등록 기준인 50㎡이하이더라도 양돈업 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무허가축사, 분뇨처리시설 변경허가 어려워

무허가 축사문제로 분뇨처리 시설 변경 허가가 안되는 상황이 빈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돈농가들은 이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돈사만이라도 변경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 나주 지역의 양돈농가들에 따르면 해양배출 중단에 따라 대안으로 기존 해양배출 처리방식을 액비화로 전환하고 싶지만 무허가 돈사로 인해 변경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올 축산업 침체 벗기 힘들 듯

지난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은 ‘농업전망 2007’ 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품목별 수급전망에서 축산물의 경우 낙농을 제외한 한육우, 돼지, 양계 등이 모두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육두수 증가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금년 한해 축산업 경기는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돼지의 경우, 지난해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모돈수가 증가해 사육두수 증가가 예상되며 산지가격은 지난해보다 하락한 연 평균가격 24만2천 원대로 예측하였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크게 증가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위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 결과 총 3천634건 가운데 돼지고기가 830건으로 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는 '05년 569건에 비해 45.9% 늘은 것으로 전체 위반건수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일년전 17.6% 보다 5.4%p 높아진 수치다.

이로써 돼지고기는 '04, '05, '06년 3년 연속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

돼지고기 수입량 20만톤 넘어서

돼지고기 수입량이 '0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06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21만462톤으로 일년전 17만3천톤에 비해 21.7% 증가하였다. 이는 '97년 돼지고기 수입 자유화 이후 최고치로 '05년에 이어 2년 연속 사상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이 가운데 냉장은 1만454톤, 냉동 20만7톤으로

전년도 6천400톤, 16만7천톤 대비 각각 63%, 20% 늘었다. 특히 냉장 돈육 수입량이 크게 늘면서 냉장 비중이 4.9%로 05년 3.7%에 견줘 1.2%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캐나다의 비중이 늘었다. 미국의 경우 전년보다 41% 많은 6만862톤(29%)으로 1위를, 캐나다는 2만6천60톤(12.4%)으로 05년 대비 29% 증가해 2위를 각각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 칠레 2만2천348톤(10.6%), 벨기에 1만8천518톤(8.8%), 프랑스 1만8천247톤(8.7%) 순으로 칠레와 프랑스는 전년보다 각각 11.9%, 0.3% 준 반면 벨기에는 9.8% 늘었다.

부위별 수입량을 보면 삼겹살이 9만2천284톤으로 '05년에 비해 11.2%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43.8%로 일년전 47.7%보다 3.9%p 낮아졌다. 그 다음은 목심 4만4천122톤(21%), 앞다리 3만1천709톤(15.1%), 갈비 2만5천481톤(12.1%) 순으로 '05년 대비 각각 77.7%, 11.7%, 5.7% 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06년 양돈사료량 소폭 증가

'03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던 양돈사료 생산량이 4년만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돈사료량은 517만5천톤으로 '05년 516만9천615톤에 비해 0.1% 늘면서 '03~'05년 3년 연속 감소하다 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한 12월 양돈사료 생산량은 46만6천여톤으로 전달 45만9천톤대비 1.5% 늘어난 반면 '05년 동월 46만9천톤에 견줘 0.5% 감소하였다.

이처럼 양돈사료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고돈가가 유지되면서 농가들의 입식 열기가 높아 지난해 돼지 사육두수가 9월 937만마리, 12월 938만마리로 2분기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돼지 사육두수가 12월 전년 동기비 4.7% 가량 늘었지만 양돈사료 생산량은 사육두수 증가폭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며 이는 그만큼 질병 등으로 폐사하는 돼지가 많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분석하였다.

실제 지난해('05년 12~'06년 11월) 돼지 폐사두수는 261만마리로 일년전 221만8천마리에 비해 17.7% 증가하였으며 폐사율도 12.3%로 전년 10.7% 대비 1.6%p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뇨 해양배출량 감소

양돈업계의 분뇨 해양배출 감축 노력이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06년 해양배출 현황에 따르면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감축목표치인 260만톤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260만7천420톤이 배출돼 전년도 대비 5%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협회에서 전개하고 있는 가축분뇨자원화 캠페인을 비롯해 양돈농가들의 감축 노력으로 이

룬 성과로 풀이된다. 한편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올해 더욱 감축돼 220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해양배출량 감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 발급 폐지

행정자치부는 지난 '04년 1월 16일 사실확인서 발급제도 개선과 관련해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최대 2년간 유예기간을 뒤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을 폐지키로 하였다.

올 2월로 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는 2월 28일자로 폐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 발급도 폐지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은 행정자치부 예규 "사실확인서발급지침"에 의해 시·구·읍·면장이 발급하고 있는 업무로 축산법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범위에 포함된 가축을 대상으로 발급했었다.

가축자가사육 범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자기축사와 가축을 보유하고 3개월이상(단, 육계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직접 보유가축을 사육한 것을 "자가사육"으로 인정하며, 가축의 최소사육두수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가축구성원이 농업인의 범위에 포함되면 발급이 가능하였다.

농업인의 범위(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는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

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에는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축산물도 포함됨)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우수 축산물 브랜드 취급 매장 늘려야

우수 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크게 개선됐으나 이를 판매하는 곳이 너무 적어 유통망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 조사에 따르면 한우 브랜드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신선함과 품질이 좋다, 맛이 좋다는 이미지가 형성돼 지난해 전체 국민의 46.8%가 구입 경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의 32.1%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구입 경험이 없는 소비자들 가운데는 브랜드육을 구입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36.6%)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였다.

돼지고기 브랜드도 지난해 소비자 구매 경험비율은 2005년의 72.6%보다 상승한 78.2%로 나타났으나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 가운데 23.9%가 구입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우수 축산물 브랜드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브랜드육을 취급하는 매장부터 늘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양돈현장에 PED ‘비상’

양돈농가 및 일선수의사에 따르면 올들어 경기 북부 지역 등을 중심으로 PED 발생이 급격히 확산, 해당양돈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추세는 일기변화가 심화, 모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게 주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도태모돈 처리 차량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이 느슨해진 추세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지역의 한 수의사는 “모돈관리에 실패할 경우 백신접종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때문에 농장마다 그 전파속도나 피해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PED에 감염된 농장의 경우 2주~한달정도 분의 분만자돈들이 폐사 또는 위축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고 모돈이 일기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치 않도록 돈사시설 점검 및 개선에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 처음으로 돼지콜레라·단독 혼합 예방약 정부에서 무상 공급

농림부에 따르면 돼지콜레라·단독 혼합 예방약의 경우 지원 대상을 전 양돈농가로 하되, 접종대상

은 모든에만 한정하여 접종토록 하고 있다.

또 예방약 공급은 모든 사육규모에 따라 회전율 (2.2회전)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이외는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하고, 두당 약품비 2백49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중 국비는 1백74원이고, 지방비는 75원이다.

이 예방약의 접종 시기는 종부 2~4주전으로 예방약은 100% 지원하지만 예방접종 시술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농림부가 올 처음으로 돼지콜레라·단독 혼합 예방약을 지원키로 한 것은 현장에서 이 질병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음에 따라 농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상황을 보아가며 내년에는 지원폭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가 그동안에 지원해 왔던 소의 경우 탄저·기종저,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 병을 비롯한 돼지의 돼지콜레라, 일본뇌염, 유행성 설사병, 오제스키병, 그리고 닭의 뉴캐슬병, 마이코 플라즈마 등의 예방을 위한 예방약은 종전대로 지원된다.

올해 예방 백신시장 성장세 지속할 듯

올해 동물약품의 트렌드는 예방적 차원의 백신 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성장세가 예상된다.

특히 PRRS(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PMWS(돼지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 등 고질적인 소모성질병들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

들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몇 년간 항생제를 포함한 주사제나 사료첨가용 시장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식품의 안전성과 항생제 내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동물약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백신 판매실적은 2004년에 비해 8.7% 성장했으며 지난해에는 약 5.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결과는 사료첨가용 시장이 감소하는 것과 매년 5% 내외의 성장이나 정체를 기록하는 동물약품 시장의 상황에서 볼 때는 고무적인 결과다.

◆ 세계

돼지고기 수출은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약 1억톤이지만 그 중에 무역이 차지하는 양은 생체 수출을 포함하여 약 800만톤(약 8%)이다.

그 중에 일본이 10% 정도를 수입하여 최대 수입 국가이다.

돼지고기는 국가별로 국내자급정책을 쓰고 있고, 수출은 여분의 양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의 국제무역은 「선진국에서 선진국」이 특징이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은 기본이 아니다.

개발도상국인 멕시코가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지만 멕시코 자체는 돼지고기 순 수입국가이다. 멕

시코가 수출하는 것은 미국 자본 계열의 양돈기업으로 미국이 수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덴마크나 대만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되어 무역상 혼란을 경험하였고, 돼지고기의 무역은 항상 취약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만일 미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돼지고기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 일본

양돈 산업 현황과 전망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상이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등 국제화가 진행됨으로 인해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국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2006년 수입량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로 감소가 예견되지만 2005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87만9천톤(부분육 기준), 2004년 수입량 86만2천톤을 1.9% 상회하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돼지고기는 4천6백45억 엔으로 수입 농산물 중에 단연 1위를 차지하였다. 그 이외에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량(2005년는 부분육 기준 10만톤)을 더하면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을 상회하여 자급률은 실질적으로 50%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 결과, 2005년도 돼지고기의 공급비율은 수입

이 52%, 국내산이 48%로 돼지고기 시장의 약 반을 해외에 의존하게 되었다.

앞으로 돼지고기의 가격 형성은 수입 돼지고기가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국

돼지고기 수출액 급증

지난해 미국산 돈육 수출액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11월 현재 미국산 돼지고기 수출금액은 20억1천5백만달러로 '03년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하였으며 수출량은 92만8천693톤을 기록,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91년부터 14년 연속 돼지고기 최고 수출액을 갱신하게 됐다고 협회는 밝혔다.

한편 미국산 돼지고기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과 멕시코로 일본의 경우 전년도보다 14% 많은 28만4천704톤(8억937만달러)의 돈육을 수입하였으며 멕시코의 경우 73% 늘어난 32만9천797톤(5억112만달러)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2007년 시무식 거행



한국종축개량협회 조병대 회장은 2007년을 여는 신년사에서 큰 포부를 갖고 열심히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하고 월남전 당시 미국의 유명한 군사무기제조업체인 맥도널드 더글라스사 중역인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라 경제가 어렵다지만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부채질하는 검소한 모습과 성실함에 깊은 감동을 받고 무기를 지원해 주었다는 실화를 이야기하며 축산이 어려운 이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축종별 당부를 통해 직원들의 개량과 육종의 의미를 깨닫고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올 한해도 열심히 뛰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한우는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종축 보존의 위기감을 갖고 2년 이내에 모든 등록이 의무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젓소는 점차 사육두수가 줄어들어 내년엔 5~6천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예상하는데 등록, 검정사업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젓소 종모우의 수출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낙농의 기본인 착유를 통한 우유 생산을 가공 산업으로 점차 넓혀 나가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는 개량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종돈은 수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이는 혈통사업과 연계된 균일화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날 조병대 회장의 신년사에 앞서 신입사원과 직원에 대한 인사가 있었다. 이번 인사발령은 직원 퇴직에 따른 신입사원 채용과 그동안 미뤄온 대리급 인사를 실시한 것으로 신입사원에 박귀룡씨를 채용하여 유우개량부 검정팀에 발령하였으며 한우개량부 구양모 팀원(검정팀)과 신승규 팀원(등록팀) 및 종돈개량부 오종열 팀원(등록팀)과 송규봉 팀원(등록팀)을 각각 과장대리로 승진 발령하였다. 또한 윤계정씨를 한우개량부 등록팀에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하였다.

한국종돈업경영인회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에 200만원 기탁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이희득)는 지난 1월 10일 대 한양돈협회를 방문, 대한양돈협회와 축산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6회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에 성금으로 200만원을 기탁하였다.

이회장은 “양돈협회와 축산신문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양돈산업 안정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돼지고기를 제공하여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고, 양돈업 안정에 기여하고 싶다"며 기탁사유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가야육종(주)

대표이사 이, 취임식 거행

지난 1월 9일 농업회사법인 가야육종(주) 대표이사 이, 취임식이 진주 동방호텔에서 대한양돈협회 최영열 회장을 비롯하여 관계, 학계, 업계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퇴임하는 허정래 대표이사는 2000년 7월 제 5대 가야육종(주) 대표이사로 부임하여 5년 5개월동안 재직 하였고 국내 최고의 GGP전문 종돈장이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하였다. 특히 한국형 종돈개량사업에 많은 열정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과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임사에서 무엇보다 직원의 단결을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육종회사로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그리고 7대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오하식 대표이사는



2000년 가야육종(주) 농장장으로 가야육종에 몸을 담기 시작하여, 2001년부터 전문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고, 2005년 경상대학교 가축육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육종

전문가로 취임사에서 "퇴임하시는 허정래 대표이사님의 업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육종전문회사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금보육종

종무식 거행

(주)금보육종(대표 장성훈)은 지난 12월 29일 원주 동서울 레스피아에서 종무식을 거행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성훈 대표는 격려사에서 "2007년은 우리 회사 설립 10년이 되는 해이고, 또 매출액도 처음으로 100억을 목표로 한 해이면서 돼지해인 만큼 여러 가지로 의미와 축복이 주어질 해이니, 모두 최선을 다하고 나와 가족과 회사를 위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장성훈 대표의 격려사 후 2007년 금보클럽 가입자(입사 3년 이상된 사원 모임)에게 수여하는 금반지 증정식과 우수 사원 포상 및 사령장 수여가 있었으며, 만찬과 함께 단합을 위한 부서별 노래자랑이 거행되었다.

1. 금보클럽 가입자: 김만진 영업본부장,
김진용 AI 센터 소장

2. 승진자

- * 생산본부: 장덕진 사원 → 주임
- * 영업본부: 김현백 주임 → 대리
- * 관리본부: 민호기 차장 → 부장
- * AI팀: 이정옥 주임 → 대리

3. 포상자

- * 우수상: 생산본부 정창선 과장, 현동림 사원,
AI 팀 김미숙 대리
- * 공로상: 생산본부 박삼열 과장, AI 팀 김영일 주임
- * 제안상: AI팀 김영일 주임

4. AI센터 팀장제 도입

- * 생산팀장: 김인규 대리
- * 강원영업팀장: 김미숙 대리
- * 경기영업팀장: 전순애 대리

(주)송강GLC

사무실 이전

(주)송강GLC(사장 원성오)는 사세의 확장에 따라 주소

를 이전하게 되었다

-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 테크
노파크 비즈센터 415호
- * 전화: 031-776-0780 (代)
- * 팩스: 031-776-0782

자회사 신설『메티스』

(주)송강GLC는 날로 늘어나는 고객들의 해피콜 서비스 강화 및 A/S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신설하였다.

-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 테크
노파크 비즈센터 B114호
- * 전화: 031-776-0783
- * 팩스: 031-776-2530

(주)동진BLS

코팅 방역복 출시 및 양돈달력 배포

(주)동진BLS(대표이사 김상중), 동진물산(주)(대표이사 김영수)는 축사 출입자 및 방역요원들이 착용하는 일회용 방역복에 코팅을 한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신제품 코팅 방역복은 흰색으로 기존의 방역복에 특수 코팅을 하여 소독 약품이나 수분이 흡수가 되지 않으면서 통기성이 좋아 장시간 착용하여도 외출복이 오염되지 않으며 냄새 또한 베이지 않아 사용자들이 호평을 얻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일회용 방역복 만큼 가격도 저렴하게 출시하였으며, 외부로부터 질병 유입이 많은 길목이나 축사 출

입자들을 위해 일회용 마스크, 비닐장화, 보안경, 위생장갑 등도 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7년도 양돈달력을 무상 배포 중에 있다. 당사 거래고객에게는 물품 주문시 같이 동봉하여 배포하고 있으나 혹시 받지 못하거나 기타 필요하신 분께서는 동사 마케팅부로 전화주시면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 마케팅부 : 국번없이 1588-3662

(주)중앙진테크

임신진단기, 정자분석 시스템, 동결정액 판매 촉진기로



(주)중앙진테크는 연말에 실시한 워크숍을 통해 2007년 핵심 추진 사업인 임신진단기, 정자분석 시스템, 동결정액의 판매촉진을 위해 신규직원을 영입하기로 하였으며 1월 2일자로 양돈팀 신규직원을 채용하였다.

올 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추정되는 임신진단기(Insight)는 기존의 여타 진단기와는 달리 프루브와 화면이 한곳에 있고 한 손으로 들고 진단을 하기에 편리하며 사

용 후 물 속에서 세척이 가능하여 청결함을 유지하여 고장의 빈도를 낮추어 사용수명을 월등히 연장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또한 기존 진단기의 화면과는 달리 판독 각도가 훨씬 넓어져서 어느 각도에서는 화면이 보이지 않는 단점을 개선했다하여 농가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 문의 : 02-587-1388

(주)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2007년 경영전략 및 우수농장 사례발표회를 가져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사장 정학상)는 최근 '2007년 경영전략 및 우수농장 사례발표회'를 갖고, 건강한 농장을 위한 헬씨후보돈 사료와 프로그램 육성돈 3차 프로그램의 실증을 소개하였다.

강화순 퓨리나코리아 마케팅 이사는 '2007년 돈가 전망과 경영전략' 발표를 통해 2007년에도 돼지 출하물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돈육 소비는 꾸준히 이어져 2006년과 비슷한 3천7백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덕현 신베트 원장은 'PMWS 등의 극복을 위한 모든 사양관리' 강의에서 질병 예방과 극복을 위해서는 후보돈 도입을 한 종돈장에서만 할 것과 3시간 이내의 분만관리, 6시간 이내 초유급여, 7산차 이상 모돈 없애기, 고압 스팀 세척기로 수세 소독 실시와 건조, 포유모돈 사료 잘 먹이기, 스트레스 최소화 등을 들며 이를 현장위주 실천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김학관 퓨리나코리아 부장은 '모돈관리 실증' 소

개를 통해 퓨리나 헬씨 후보돈 사료와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초산돈의 수태율과 분만율이 개선된 사례, 2산차 문제를 개선한 사례, 연평균 분만율 90%이상을 지속적으로 달성한 농장 사례, 격리 후보돈 운영 사례 등을 들면서 성공적인 농장을 공개하였다.

대상팜스코(주)

판매부장 영업활동성 강화 교육 실시

“Fresh for well-life”를 캐치프레이즈로 사양가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제품 개발 및 시스템 확립에 앞장서고 있는 대상팜스코(주)(대표이사 조광수)가 '07년 1월 8일부터 5일간 경기도 안성 소재 본사에서 전국 각지의 특약점 판매부장을 대상으로 축종별 제품 교육 및 시설, 환기, 수의 분야에 걸친 폭 넓은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판매부장의 영업 활동성 강화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양돈 및 축우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 대해 오명호 마케팅실장은, 대상팜스코는 사료 업계에서 최초로 구축한 축산과학연구소 조직과 연계하여 사양가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가장 접점에서 있는 판매부장의 활동성이 대상팜스코 기업 이미지 고취 및 판매량 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대상팜스코는 이와 같은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컨설팅 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사양가에게 수익을 안

겨 줄 수 있는 실전적인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주)메이클린

용인서 18일 축산폐수 자원화 세미나 열려

(주)메이클린(대표 김문섭)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주)메이클린 세미나실에서 축산폐수 자원화에 관심이 많은 각계 전문가 20명을 초청하여 축산폐수 자원화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인 산화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뜻깊은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주)메이클린은 자사가 개발한 산화수를 활용하여 좋은 성적을 얻고 있는 미평리 소재 에벨양돈장(대표 신동호) 견학 시간도 마련하여 양돈장의 현안 문제인 소모성 질병과 폐수처리 문제를 메이클린 산화수로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였다.

또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모두 직접 축산폐수를 산화수로 정화하는 실험을 경험하였으며, 산화수로 우리나라 축산의 난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06년 혁신경진대회 및 워크숍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구랍 28일 서울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06년 혁신경진대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최상호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경진대회를 통해 직원들이 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방역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변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문제의식과 창의성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방역본부는 발굴된 혁신사례는 전 부서에 확산시켜 생산성 향상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며, 실시 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큰 신규 사업은 예산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모색,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한국양돈산업 표준화 용어 책자발간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는 국내 처음으로 현재 양돈농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각종 전산프로그램의 용어 및 계산공식을 표준화한 책을 발간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농가별, 프로그램별 용어 및 계산공식이 서로 달라 자료이용의 혼선과 프로그램 간 연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석상의 차이가 심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비교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양돈농가프로그램의 상호비교와 용어의 대분류 8개, 표준화용어 98개 및 표준화 산출식 8개항을 정리하여「2006 한국양돈산업 표준화용어정리 및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2,000부를 발간하여 관련기관과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 연구를 담당한 손삼규 연구관은 “농가가 이 프로그램의 속성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체를 통한 홍보와 영농교육 현장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 문의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손삼규 041-580-3355

(주)제일바이오

검역원, 자율점검제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쾌거

(주)제일바이오(회장 심광경)는 구랍 29일 수의과학검역원의 2006년 동물용의약품 자율점검제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동물용의약품 자율점검제는 동물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와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말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동물약품 사용에 있어 농장에서의 안전성과 약품업계 자체적인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가져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일바이오는 앞으로 고품질 우수제품을 생산·보급하는데 지속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농장에서의 제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약품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높일 방침이다.

도드람양돈조합

“황금돼지해, 도드람조합의 해 만들자”

도드람양돈조합(조합장 진길부)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보다 공격적으로 돈육시장을 공략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도드람양돈조합은 지난 2일 시무식 직후 진길부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및 투자회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도드람포크 시식회’를 갖고 적극적인 소비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진길부조합장은 “도드람포크는 생산기술, 사료, 신용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드람 사업의 결정체”라며 “올해에는 품질로써 시장에서 승부, 도드람포크의 시장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제품 안내

SEN21

애니실버스톤(eni Silver Stone) 보급

- 물탱크 속에서 Silver Stone을 넣어만 주면 650여종 이상의 균, 미생물, 바이러스, 박테리아 내성이 생기지 않으면서 항균 및 살균 효과 발휘

농축산 초단열재 전문업체인 SEN21(대표 김태호)이 최근 ‘물탱크 소독 살균용’ 신제품인 ‘애니실버스톤(eni Silver Stone)’을 농장에 보급하고 있다.

농장에서 물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물탱크 속에 있는 물의 오염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니실버스톤’이라는 제품을 개발, 보급하게 되었다고 김태호 사장은 밝혔다.

동사에 따르면 은은 예로부터 소독 살균하는데 사용되어 왔다면, 물탱크 속에서 Silver Stone을 넣어만 주면

650여종 이상의 균, 미생물, 바이러스, 박테리아 내성이 생기지 않으면서 항균 및 살균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애니실버스톤(eni Silver Stone)’의 특징 및 효과는 다음과 같다.

- ▷ 강력한 살균 및 항균력을 가진 은을 나노기술로 작게 만들어 자연석에 침투시켜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개발
- ▷ 물탱크에 실버스톤(Silver Stone)을 넣어 주기만 하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하다.
- ▷ 고농도의 나노실버가 자연석에 깊이 침투되어 있으므로 사용연한이 반영구적이다.
- ▷ 항균 및 살균된 물을 가축들이 급여 및 청소에 이용하여 수인성 전염병 및 복합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 물탱크내 온도 상승으로 발생하는 조류 및 곰팡이 발생 억제
- ▷ 항균 및 살균작용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므로 물이 탱크에 있는 시간이 6분 이내며 충분하다.

* 문의 : 031-321-1450, 011-350-8974 